

# 개념의 (의도적인) 혼란 : 한국의 망중립성 담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망 이용대가

- 망 이용대가란 무엇인가?
  - 회선 사용료 (전용회선료)
  - 상호 접속료
  - CDN 전송요금
  - 통행료 (?)

# 망 이용대가 : 통행료?

- [서울경제] '공짜 논란' 봉합한 폐북...망 사용료 '새 기준' 시작되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78F3U3V>)

업계에서는 페이스북과 구글 넷플릭스 등 3개 글로벌 CP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을 연간 5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트래픽 점유율이 70%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구글의 자회사 유튜브는 안드로이드폰 동영상 앱 사용시간 점유율이 압도적인 86%를 기록하며 국내 망 시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는 여전히 협상력 우위를 바탕으로 망 사용료를 회피하고 있어 연간 각각 연간 700억원과 300억원을 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 이용자 요청에 의한 트래픽이 망 이용대가(사용료)의 기준인가?
- 특정 망을 통해 전송되기만 하면, 전 세계 CAP이 전 세계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

# 망 이용대가 : 상호접속료?

- [이데일리] 넷플릭스·유튜브, 전세계 통신사와 전쟁중..망이용대가 분쟁 잇따라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86086619279440&mediaCodeNo=257&OutLnkChk=Y>)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텔레콤과 구글 트래픽 중계사(Cogent)간 망이용대가 분쟁**

이 발생했다. 이후 프랑스텔레콤은 중계사(Cogent)의 대가 지급 거부에 대응해 상호 연동 구간의 용량 증설을 중단했으며 이후 구글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다. 이에 중계사(Cogent)는 프랑스텔레콤을 지배력 남용 행위로

**프랑스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무혐의' 결정**

됐다. 트래픽 교환비율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을 인정해 '네트워크 용량 증설 중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 망 이용대가 : CDN 전송요금?

- [전자신문] <5>망이용대가 한푼 안 내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 (<http://www.etnews.com/20171217000045>)
- 전용회선료 = CDN 전송요금 ?
  - 통신사는 캐시서버 설치로 해외 상호접속료 절감

글로벌 CP가 한국 인터넷을 공짜로 이용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기원은 구글(유튜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튜브가 인기는 있지만 지금처럼 트래픽은 많지 않던 인터넷 초창기 이야기다. 한국 ISP는 유튜브 캐시서버를 사실상 무료로 자사 IDC에 입점해주는 과오를 범한다. 유튜브를 찾는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설마 오늘날처럼 트래픽이 폭증할 줄은 몰랐다고 한다.

# 혼란스러운 개념, 잘못된 프레임

- 글로벌 기업 vs 국내 기업
- 통신사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력 제고를 이유로 망중립성 완화 요구
- 국내 CAP는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호소
-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 5G와 관리형 서비스

- 5G 네트워크의 Public Internet 에서 망중립성 완화 근거 없음.
- 5G 네트워크에서 관리형 서비스(SpS)는 가능.
- 다만,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 허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필요.

# 상호접속

- 한국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의 문제
  - 효율적인 망혼잡 처리, 상호 망접속 동기 저하 유발
- 사업자간 자율협상에 의지할 경우, 상위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의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 제로레이팅

- 제로레이팅은 한정된 데이터 제공량을 전제로 함.
- 제로레이팅 활성화는 통신사가 데이터 제공량을 제한하려는 동기 부여
- 제로레이팅에 따른 통신비 인상 경향에 대한 분석 필요.
  - ZR 도입시 모바일 통신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 (Luca Belinfante, Net Neutrality, Zero-rating and the Minimization of the Internet, 2016)